



호랑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5할 승률에 머문 5월, 호랑이들이 뜨거운 여름에 도전한다.

KIA 타이거즈가 LG와 한화를 상대한 5월 마지막주 경기에서 3승3패를 거두며 5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 KIA는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 이어지면서 순위싸움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볼러코스터를 탄 타선과 위태위태한 볼펜진 탓에 25승25패 5할 승률을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

6월을 맞는 KIA에는 호재와 악재가 반반이다. 꾸준한 선발진의 모습은 KIA의 가장 큰 무기다. 선발진 운영의 키를 쥐고 있던 용병 콜론이 지난달 29일 세 번째 정식 선발 등판만에 승리를 챙겼다. 29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2이닝 동안 5개의 사사구를 날리며 우려를 낳았지만 다음 등판에서 곧바로 승리투수가 됐다.

들쭉날쭉한 컨트롤이 문제지만 기본 좋은 승리로 한국 무대 적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원투펀치 윤석민·양현종은 팀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볼펜 승투 투우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서재응과 로페즈의 승리 쟁기다.

서재응은 3.21의 방어율로 KIA 선발진 중 가장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3승을 수확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화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의 완봉투를 선보이고도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로페즈도 야수들의 잇단 실수 속에 평정심을 잃었다. 공의 위력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속에 지난 4월3일 첫 승을 기록한 이후 2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의 조급함이 길어지면 마운드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김선빈 등 백업요원 맹활약 '5월 위기' 넘겨

이번주 삼성·넥센과 원정 6연전 승수쌓기



<김선빈>

타선의 공백도 크다. '해결사' 김상현의 부상으로 중심타선에 힘이 빠진 가운데 안방마님으로 공·수에서 맹활약해준 김상훈도 장판지 부상으로 재활군에 있다. 김상현의 빈 자리를 채우며 만점활약을 해준 박기남도 오른쪽 팔꿈치에 물이 차면서 재활군 신세가 됐고, 힘 빠진 이현곤도 2군으로 추락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백업선



<안치홍>

수들이 내·외야 전면에 포진하고 있다. 다행히 김상훈 대신 안방을 접수한 차일목과 안치홍과 '꼬꼬마 키스톤'을 구성한 김선빈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며 힘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김선빈은 약점으로 꼽히던 수비에서 여유를 더하며 묵묵히 유격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매서운 방망이 실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2

프로야구 중간 순위 (6월1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33	16	0	0.673	0.0	2승
2	두산	28	21	1	0.560	5.5	2패
3	삼성	28	22	0	0.560	5.5	2승
4	KIA	25	25	0	0.500	8.5	2승
5	롯데	23	28	0	0.451	11.0	2패
6	LG	22	26	1	0.449	11.0	2승
7	한화	20	30	0	0.400	13.5	2패
8	넥센	20	31	0	0.392	14.0	2패

타점을 울리며 승리의 주역이 되는 등 최근 5경기 타율이 0.400을 기록하고 있다.

주전들의 공백은 KIA에 악재지만 백업 선수들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는 오히려 전회위복이 될 수도 있다.

KIA는 이번주 대구와 목동으로의 원정길에 오르며 6월을 시작한다. 무서운 상승세로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간 삼성과의 주중 3연전, 5승3패로 올 시즌 전적에서 앞서고 있지만 늘 어려운 대결을 벌인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뜨거워진 프로야구 열기만큼 뜨겁게 전개될 내부 경쟁의 양상에 따라 KIA의 6월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빈볼' 박경태 5게임 출장정지

KIA 타이거즈의 투수 박경태가 빈볼 퇴장과 관련해 제재금 100만원과 5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삼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이대형에게 위협구를 던진 박경태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생팀 돌풍 보여주마!

광주도시공 핸드볼팀 창단 후 첫 나들이

12~20일 태백산기 참가 기량 선보여

광주도시공사(이하 광주도시공) 여자핸드볼팀이 창단 40여일 만에 전국대회에 첫 출전한다.

광주도시공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등 3곳에서 열리는 제7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 참가해 첫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광주도시공은 오는 18일 여자일반부 강호 용인시청과 데뷔전을 치른다. 광주도시공은 올 전국체전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전국체전은 전국대회를 주중 3연전, 5승3패로 올 시즌 전적에서 앞서고 있지만 늘 어려운 대결을 벌인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뜨거워진 프로야구 열기만큼 뜨겁게 전개될 내부 경쟁의 양상에 따라 KIA의 6월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하고, 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만큼 성적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면서 "큰 부상 없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팀은 그간 국민생활관과 영주종합체육관·월드컵경기장 등서 훈련을 해왔다.

오전엔 국민생활관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웨이트트레이닝과 체력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오후엔 팀력과 기술훈련으로 팀워크를 다져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여자일반부 2팀과 남자 대학부 5팀, 남고부 14팀, 여고부 16팀, 남중부 16팀, 여중부 17팀, 남초부 16팀, 여초부 14팀 등 총 100개 팀이 참가한다. 현재 핸드볼 143개 등록팀의 7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태백산기 대회는 2002년 종교연맹 대회로 출범했으나 김정식 강원도핸드볼협회 회장이 2004년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전 종별 팀이 출전하는 종합대회로 확대시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물살 가르며 지난달 31일 러시아 피터스버그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컵 조정경기대회 결승에서 참가자들이 힘찬 질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해의 별은 누구?

오늘부터 '올스타' 팬 투표 시작

프로야구 '별종의 별'을 가리는 올스타전 투표가 1일 시작된다.

오는 7월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CJ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스타를 선발하는 '베스트 10 인기투표'가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경기장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투표를 통해 Western League(KIA·넥센·LG·한화)와 Eastern League(SK·두산·롯데·삼성) 양팀의 포지션별 구단 추천 선수 중 최다 득표선수 10명씩 총 20명이 선정된다.

정된다.

KIA에서는 백전노장 이종범이 역대 최다인 통산 14번째 베스트 10에 도전한다. 지난해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에 등극한 2루수 안치홍을 비롯해 양현종(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김상현(3루수), 이현곤(유격수), 김원섭·이용규(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도 KIA를 대표해 베스트 10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장 투표수를 입장관중 1인 1매를 원칙으로 구단별 6만매(구단당 홈 12경기)로 제한하며, 현장 투표수는 최종 집계시 합산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

타이거즈기 호남 초등학교대회

5일까지 광산 본랑리들구장

제 7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5일 광주 광산구 본랑리들구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북지역 15개 초등학교가 참가하며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메달이 수여된다.

또 전체 참가팀에게는 시합구 20타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10개 부문의 개인상 수상자에게는 글러브와 야구화 등의 상품이 마련됐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경기시간 12분 단축

올 시즌 프로야구 평균 소요시간이 지난해보다 12분가량 단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올 시즌 평균 경기시간이 3시간 6분(9이닝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소요시간(3시간18분)보다 12분 빨라졌다고 밝혔다.

구단별로는 롯데 자이언츠가 3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기를 펼쳤고, LG 트윈스는 3시간 12분으로 평균 경기시간이 가장 길었다.

5월까지 50경기를 치른 KIA의 평균 경기시간은 3시간 5분이었다.

한편 올 시즌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투수 12초를 경고는 39차례가 나왔고, 2차 위반으로 볼 관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휴식 끝' 김연아 캐나다 출국

"아직 은퇴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바라보다가보다는 일단 이번 시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려 합니다" 고향에서 두 달 동안 휴식을 마치고 다시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는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은퇴를 고민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달 31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은퇴라면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 토론토로 훈련을 하러 가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선수생활을 할 것이고, '은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톱10 불발' 13위 그쳐

'뱅크'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운 플라자 인비테이션에서 아쉽게 톱10에 들지 못했다.

최경주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골프장(파70·72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공동 13위에 올랐다.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도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22위(11언더파 269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Challenge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신청자격	한국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소학교급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인 자
수업시간	방과후시간
수업장소	방과후학교
수업내용	방과후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수업비	방과후학교에서 부담
수업장소	방과후학교에서 실시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edu.ac.kr>
전화문의 ☎ 1544 - 4330